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 오늘 낳을 수 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역우(易友)가 제공(提供)한 사례(事例)이다. 며느리가 해산(解産)에 임박(臨迫)해서 묻는데, 오늘 낳을 수 있는지 점(占)쳤다.

임인년(壬寅年) 경술월(庚戌月) 정유일(丁酉日) 경술시(庚戌時) (공망(空亡): 진사(辰巳))에,

수화기제(水火既濟)가 지화명이(地火明夷)로 변(變)하는 과(卦)를 얻었다.

壬寅年 庚戌月 丁酉日 庚戌時

八卦

水火既濟(坎水宮) 之 地火明夷(坎水宮)

父癸酉 || 青 兄戊子 || 應 伏 兄戊子  
害鬼乙將 馬災害 馬災害

兄癸亥 || 玄 官戊戌 才 伏 官戊戌  
花劫喜乙馬 閏蓋花鞍 閏蓋花鞍

世 官癸丑 || 白 父戊申 || 伏 父戊申  
閏天蓋 馬亡 馬亡

兄己亥 | 蛇 兄己亥 | 世 伏 財戊午  
花劫喜乙馬 花劫喜乙馬 帳將花

官己丑 || 勾 官己丑 || 伏 官戊辰 空  
閏天蓋 閏天蓋 閏馬月天

應 孫己卯 | 朱 孫己卯 | 伏 孫戊寅  
花馬災 花馬災 地花劫

遊魂卦

空亡: 辰巳

卦身: 孫寅

世身: 六爻

뒤에 술월(戌月) 경술일(庚戌日) 인시(寅時)에 딸아이를 낳았다. 분만(分娩) 예정일(豫定日) 보다 10여 일(餘日) 늦어졌다.

이것은 자손(子孫)을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자손 묘목(卯木)이 초효(初爻)에서, 월합(月合)하여 득기(得氣)하여 일충(日冲)으로 암동(暗動)하니, 마치 오늘 낳을 듯한 상(象)이나, 술토(戌土) 독발(獨發)로 합주(合住)하니, 반주(絆住)하여 지연(遲延)된다. 독발은 응기(應期)를 주(主)하는데, 독발이 시(時)에 치(值)하여, 시가 경술이 되므로 경술일에 응기(應期)한다. 시에 있는 응기는 자손을 나타낸다.

독발이 양(陽)이 동(動)하여 음(陰)으로 변했으니 딸아이를 낳는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今天能不能生？（王虎应写）

这是易友提供的一个案例。问媳妇临产，占今天能不能生？于壬寅年庚戌月丁酉日庚戌时（旬空：辰巳），得水火既济之地火明夷。

青龙	兄弟子水"应	
玄武	官鬼戌土○	兄弟亥水
白虎	父母申金"	
螣蛇	妻财午火	兄弟亥水'世
勾陈	官鬼丑土"	
朱雀	子孙卯木'	

后于戌月庚戌日寅时生下一个女孩。比预产期延迟了10几天。  
 此以子孙为用神。子孙卯木在初爻，月合得气，日冲暗动，好像今天要生之象，但是戌土独发合住，绊住而会延迟。独发主应期，独发值时，时为庚戌，故应庚戌日。应在时代表子孙。  
 独发阳动变阴为生女孩。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7장(第七章) 관직(官職)을 사양(辭讓)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며, 청빈(淸貧)을 편안(便安)히 여겨 벼옷을 입은 채 도(道)를 지키다

백원(百源)에서 수년(數年) 동안 문(門)을 닫아걸고 깊이 침잠(沈潛)하여 마침내 대도(大道)를 깨달으니, 소옹(邵雍)은 학문(學問)의 깊이가 더해지고 심성(心性) 또한 한층 원만(圓滿)해졌다. 선천(先天) 조화(造化)의 오묘(奧妙)한 이치(理致)는 물론(勿論)이요, 하늘과 인간(人間)이 하나로 맞닿는 지극(至極)한 경지(境地)까지 온전(穩全)히 터득하였다. 예전에 가슴속에 흩어져 있던 의리(義理)의 학문(學問)과 강산(江山)을 유람(遊覽)하며 넓은 견문(見聞), 그리고 여러 학파(學派)를 거치며 쌓은 학식(學識)이 모조리 녹아 들어 자신(自身)만의 거대한 도(道)로 단단하게 영글었다. 그 사변(思辨)의 깊이와 격국(格局)의 넓이, 그리고 식견(識見)의 높이는 이미 당대(當代)의 내로라하는 이름난 유학자(儒學者)들을 훨씬 뛰어넘은 뒤였다. 소문산(蘇門山) 자락에 묻혀 조용히 학문을 닦던 세월(歲月)은 비록 세상(世上)과 완전(完全)히 단절(斷絶)되어 있었으나, 주머니 속의 송곳 같은 그의 명성(名聲)은 끝내 감추기 어려웠다. 당시(當時) 공성(共城)의 관리(官吏)들과 중주(中州)의 명사(名士)들이 산(山)속에 한 청년(靑年) 고사(高士)가 은거(隱居)하며 하락(河洛)의 천기(天氣)를 통달(通達)하고 천지(天地)의 운수(運數)를 밝게 알며 고금(古今)의 치란(治亂)을 깨닫고 있다는 소문(所聞)을 들었다. 이에 너도나도 그의 높은 명성을 흠모(欽慕)하여 앞다투어 산으로 들어와 문을 두드렸고, 가르침을 청(請)하고 배움을 구(求)하며 깊이 도를 논(論)하였다.

이처럼 왕래(往來)가 잦아지면서 소옹의 명성(名聲)은 알게 모르게 중주(中州) 땅 전역(全域)에 널리 퍼져 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공성의 산야(山野)에 벼옷을 입은 비범(非凡)한 청년이 있어, 세상의 걸치레나 화려(華麗)함에 연연(戀戀)하지 않고 오직 대도(大道)를 깊이 닦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의 학식(學識)은 속세(俗世)를 초연(超然)히 벗어났고 심성(心性)은 맑고 투명(透明)하여, 천리(天理)를 논하고 인간 세상을 분석(分析)하며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변론(辨論)할 때마다 매번(每番) 세상 사람들이 아직 미처 밝혀내지 못한 심오(深奧)한 이치(理致)를 명쾌(明快)하게 통달하니, 노련(老練)한 선비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탄복(歎服)할 따름이었다. 그 시절(時節) 북송(北宋)은 문풍(文風)이 전성기(全盛期)를 이루어 조정(朝廷)과 재야(在野)를 막론(莫論)하고 모두 과거(科擧) 급제(及第)와 벼슬길을 으뜸으로 숭상(崇尙)하였다. 그리하여 천하(天下) 독서인(讀書人)의 평생(平生) 숙원(宿願)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입신(立身)하고 부귀공명(富貴功名)을 얻어 가문(家門)을 빛내고 조상(祖上)을 기리는 일뿐이었다. 수(數)많은 유생(儒生)들이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경서(經書)를 궁구(窮究)하고 과거 시험(試驗) 문장(文章)에 파묻혀 반평생(半平生)에 온 정성(精誠)과 힘을 쏟아 부으며 명예와 녹봉(祿俸)만을 쫓아다녔으니, 벼옷을 입은 청빈을 곤궁(困窮)으로 여겼고 산야로 돌아가 은거하는 삶을 무능(無能)함의 소치(所致)로 여겼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利益)을 바쁘게 좇아갈 때, 오직 소옹만이 도도한 흐름을 거슬러 행(行)하며 본심(本心)을 굳건히 지켰다. 도를 깨달아 큰 성취(成就)를 이룬 뒤에도 그는 여전히(如前)히 누추(陋醜)한 초옥(草屋)에 안거(安居)하며 낮에는 농사(農事) 짓고 밤에는 책(冊)을 읽는 소박(素朴)한 생애(生涯)를 지켰고, 좋은 밭을 장만하지 않았으며 화려한 집을 짓지 않았고 재리(財利)를 쫓지 않았다. 일상(日常)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은 거친 차(茶)와 밥으로 소탈하게 때우고 소박(素朴)한 배움을 입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고 우주(宇宙)의 이치를 미루어 펼치며 정좌(靜坐)하여 마음을 맑게 관찰(觀察)하였다. 한가(閑暇)할 때는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자급자족(自給自足)하여, 극(極)히 간소(簡素)한 인간 세상의 연기(煙氣) 속에서 도심(道心)을 편안(便安)히 지키고 천지의 정기(正氣)를 온화(穩和)하게 함양(涵養)하였다. 예전에 학문을 구할 때는 처한 환경(環境)이 곤궁하여 청빈하게 지냈으나, 이제 학문을 이루고 명성이 드높아진 지금의 청빈은 바야흐로 그의 본심이 스스로 선택(選擇)한 바였다. 그는 세속의 영화(榮華)가 모조리 허망(虛妄)할 뿐이며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는 그저 몸 바깥의 외물(外物)일 뿐임을 흰히 간파(看破)하였다. 오직 마음 속의 대도와 가슴속의 정기, 그리고 평생 배운 학문이야 말로 없어지지 않는 근본(根本)임을 이미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명성(名聲)이 날로 성(盛)해짐에 따라 지방(地方)의 관공서(官公署)와 군현(郡縣)의 관리(官吏)들이 여러 번 초옥을 찾아왔다. 그들은 소옹(邵雍)의 탁월(卓越)한 재주를 아끼고 그가 산야에 묻혀 매몰(埋沒)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들 그를 조정(朝廷)에 천거(薦舉)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려고 애를 썼다. 마침 조정에서도 어진 인재(人才)를 널리 거두고 은거(隱居)하는 고사들을 극진(極盡)히 찾아다녔던 때였으므로, 무릇 명성이 있는 자는 모두 천거를 거쳐 곧바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어 과거(科擧)라는 숨막히는 굴레에 얽매일 필요(必要)가 없었다. 수많은 고향의 명사들과 동창(同窓) 친구(親舊)들 또한 너도나도 권(勸)하고 설득(說得)하며, 시세(時勢)와 형세(形勢)에 순응(順應)하여 세상에 나아가 가슴에 가득 찬 경륜(經綸)을 바탕으로 조정에 입신하고 도탄(塗炭)에 빠진 세상을 구제(救濟)하며 백성을 편안케 하라고 권하였다. 평생 배운 바를 저버리지 말고 타고 난 빼어난 자질(資質)을 허비(虛費)하지 말라는 당부(當付)였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무(文武)의 재주를 배워 제왕(帝王)의 가문(家門)에 바쳐 쓰이게 하는 일이야 말로 독서인(讀書人)이 도달(到達)해야 할 지고(至高)한 종착지(終着地)였으니, 청빈하게 은거하여 산야에서 생을 마치는 일은 결국 큰 재능을 싹히고 이승의 삶을 헛되이 보내는 소치에 불과(不過)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직(官職)의 부름과 세상 사람들의 간곡(懇曲)한 권유(勸誘)를 대(對)하면서도, 소옹(邵雍)은 시종(始終) 담담(淡淡)하게 처신(處身)하며 완곡(婉曲)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가 세상일을 통달하지 못했거나 세상을 구제할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정(朝廷)의 어지러운 분쟁(紛爭)과 벼슬길의 가혹(苛酷)한 굴레를 이미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조정은名利(名利)가 판치는 마당이라 가장 쉽게 사람의 심성을 어지럽히고 도(道)를 지키려는 올곧은 마음을 소모(消耗)하게 만들며, 관직 사회(社會)의 규칙(規則)은 숨 막히도록 복잡(複雜)하고 당파(黨派) 싸움이 아귀다툼처럼 끊이지 않아 한 번 그 소용돌이에 발을 들이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마련이었다. 결국 세속의 번잡(煩雜)한 일들에 발이 묶여, 깊이 정좌하여 도를 깨닫고 학문을 갈고 닦을 여유(餘裕)란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됨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학문을 다스리는 목적(目的)은 부귀공명과 벼슬길을 위(爲)한 것이므로 이익을 다투어 달려가지만, 소옹이 학문을 다스리는 목적은 천지와 창생(蒼生)과 대도(大道)를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피(避)하기에 급급(急急)하였다. 그가 일생(一生) 동안 구한 바는 단 한 번도 조정의 높은 자리나 세간의 화려한 영화가 아니었고, 오직 천인의 이치를 관통하고 대도를 전승(傳承)하여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이었다.

이렇듯 수차례 관직(官職)을 거절하니, 세속의 따가운 비난(非難)과 타인(他人)이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이해(理解)하지 못해 수군거리는 것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當然)한 일이었다. 어떤 이는 그가 융통성(融通性)이 없고 고집(固執)스러워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며, 절세(絶世)의 재주를 허비한 채 산야에 스스로 만족(滿足)하며 파문혀 지낸다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그가 청고(淸高)하고 외롭고 오만(傲慢)하여 짐짓 태도(態度)를 꾸며 은거하는 명성을 거짓으로 지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칭송(稱頌)을 사려한다고 뼈뺌하게 보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그의 타고난 자질이 탁월(卓越)한 데도 결국(結局) 시골 한구석에 갇혀 포부(抱負)를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유언비어(流言蜚語)가 사방(四方)에서 일어나고 칭찬(稱讚)과 비난(非難)의 소리가 어지러웠으나 소용은 전혀 동요(動搖)하지 않았다. 그는 구태여 변명(辨明)하지 않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다투지 않았으며, 번뇌(煩惱)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날마다 밭 갈고 책 읽으며 밤마다 우주의 세운을 미루어 펼쳤고, 초옥에 거처하면서도 천지를 가슴에 웅장하게 품었으며 청빈한 처지(處地)에 있으면서도 그 기개(氣概)는 산하(山河)를 관통(貫通)하였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도(道)가 낮은 곳에 있고 마음이 간결하고 고요한데 있으니, 청빈은 결코 고통(苦痛)이 아니요 도를 지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법(法)이었다. 부귀와 공명은 몸을 부양(扶養)할 수는 있으나 맑은 마음을 기르기는 어려우며, 조정의 높은 자리는 일시(一時)에 세상을 구제할 수 있으나 만세(萬世)에 대도(大道)를 전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세상에 나아가 관리가 되면 지극히 한 지방의 복(福)을 다지고 한때에 은혜(恩惠)를 베풀 뿐이지만, 은거하여 도를 깨달으면 만고(萬古)의 현기(玄機)를 깨달아 천추(千秋)에 길이 전(傳)할 수 있었다. 그는 청빈으로써 심성을 단단하게 연마(鍊磨)하고 담박(淡泊)하게 본성(本性)을 지켰으며, 거친 차와 밥 속에서 호연정기(浩然正氣)를 함양(涵養)하였고 시골 마을의 소박(素朴)한 삶속에서 학문을 다스리는 초심(初心)을 단단히 지켜내었다. 권세가(權勢家)에 빌붙지 않았고 세속에 영합(迎合)하지 않았으며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쫓지 않은 채, 한갓 벼룩 입은 몸으로 독서인의 가장 순수(純粹)하고 가장 고귀(高貴)한 기개(氣概)를 홀로 지켜내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쫓아갈 때 그는 홀로 도를 지켰고,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갈 때 그는 홀로 마음을 지켰다. 온 세상이 사소(些少)한 벼슬길로 바쁘게 달려가는 시대(時代)의 홍수(洪水) 속에서, 소용은 한 몸의 벼룩으로 천고(千古)의 깨끗한 절개(節概)를 확립(確立)하였다. 그는 반평생을 청빈하게 단단히 지켜내며 오도(悟道)가 공명을 위한 일이 아니요 학문을 다스리는 일이 부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초심을 몸소 입증(立證)하였다. 오직 벼슬길만을 유일(唯一)한 출세(出世)로 여기던 편협(偏狹)한 세태(世態)를 시원하게 깨부수어, 북송의 문단(文壇)과 후세(後世)의 학인(學人)들에게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 외물에 초연(超然)하는 성현(聖賢)의 이정표(里程標)를 세워 주었다. 이처럼 외물에 흔들리지 않고 명리에 움직이지 않는 순수한 도심은 그의 학문을 더욱 순수하고 후중(厚重)하며 초연하고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훗날 책을 저술(著述)하여 학설(學說)을 세우고 만방(萬方)을 교화(教化)하며 세운을 미루어 펼치는 데 있어 가장 견고(堅固)한 심성의 근기(根基)를 굳건히 다져 놓았다.

### 第七章 清贫守道，布衣安贫拒功名

百源数载闭关悟道，邵雍学问大成、心性圆融，彻底贯通先天造化之理，洞彻天人合一之境。昔日胸中零散义理、山河见闻、百家学识，尽皆凝练成一己大道，其思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辨之深、格局之广、见地之高，早已远超当世寻常鸿儒。苏门山间静修岁月，虽与世隔绝，然其盛名终究难以掩藏。时有共城官吏、中州名士听闻山中隐有青年高士，通河洛之秘、晓天地之运、知古今治乱，纷纷慕名入山，登门求教、访学论道。一来二去，邵雍的才名悄然传遍中州大地。世人皆知共城山野之间，有一位布衣青年，不恋浮华、深耕大道，学识超然、心性通透，论天理、析人事、辩兴衰，每每出言皆发人未发、通透彻达，令无数老成儒士俯首叹服。彼时北宋文风鼎盛，朝野崇尚科举仕途，天下读书人毕生夙愿，无非金榜题名、立身朝堂、博取功名、光宗耀祖。万千儒生皓首穷经、埋首八股，耗尽半生心力追逐仕途利禄，视布衣清贫为困顿，视归隐山野为无能。

世俗洪流滔滔逐利，唯独邵雍逆流而行、坚守本心。自悟道大成之后，他依旧安居简陋茅屋，守着清贫耕读生涯，不置良田、不筑华屋、不逐财利。日常粗茶淡饭、布衣素衫，晨昏读书推演、静坐观心，闲暇耕作劳作、自给自足，于极简烟火中安守道心、涵养正气。昔日求学之时，清贫是境遇所限；如今学成盛名，清贫却是本心所选。他早已勘破世俗荣华皆是虚妄，功名富贵皆是外物，唯有心中大道、胸中正气、毕生所学，方是终身不灭的根本。

随着声名日盛，地方州府、郡县官吏屡次登门，惜其旷世奇才、怜其埋没山野，纷纷举荐邵雍入朝应试、步入仕途。彼时朝廷广纳贤才、寻访隐逸高士，但凡有才名者，皆可经举荐入仕，无需困于科举桎梏。一众乡绅名士、同窗友人亦纷纷劝说，劝其顺势而出，凭满腹经纶立身朝堂、济世安民，不负平生所学、不负旷世天资。在世人眼中，学成文武艺、货与帝王家，乃是读书人至高的归宿，归隐清贫、终老山野，终究是埋没奇才、虚度此生。

面对接踵而至的仕途邀约与世人规劝，邵雍始终淡然处之、婉言谢绝。他并非不通世事、无意济世，而是早已看透朝堂纷争、仕途桎梏。朝堂名利场，最易乱人心性、消磨道心；官场规则繁琐、派系林立，入局便身不由己，终将深陷俗务纠葛，再无闲暇静坐悟道、深耕学问。世人治学，为功名、为富贵、为仕途，故而趋之若鹜；邵雍治学，为天地、为苍生、为大道，故而避之不及。他一生所求，从来不是庙堂高位、世间荣华，而是贯通天人、传承大道、启迪世人。

数次拒仕，难免引来世俗非议与旁人不解。有人讥其迂腐固执、不识时务，空有绝世才华却自甘沉沦山野；有人笑其清高孤傲、故作姿态，故作隐逸之名博世人称颂；亦有人惋惜其天资卓绝，终究困于一隅、难展抱负。流言蜚语四起，褒贬之声参差，可邵雍全然不为所动。他不辩、不争、不恼、不忧，依旧日日耕读、夜夜推演，身居茅屋而心怀天地，身处清贫而气贯山河。

在他心中，道在低处、心在简静，清贫非苦，守道方安。富贵功名可以养身，却难以养心；庙堂高位可以济世一时，却难以传道万世。入世为官，至多造福一方、惠及一时；隐居悟道，却可勘破万古、流传千秋。他以清贫砺心性，以淡泊守本真，于粗茶淡饭中涵养浩然正气，于烟火朴素中坚守治学初心。不依附权贵、不迎合世俗、不追逐浮华，以一介布衣之身，守住读书人最纯粹、最高贵的风骨。

世人逐名，他独守道；世人逐利，他独守心。在举世滔滔奔赴仕途的时代洪流中，邵雍以一身布衣立住千古风骨。他用半生清贫坚守，印证了自己悟道不为功名、治学不为富贵的初心，打破了世俗“学而优则仕”的单一桎梏，为北宋文坛、后世学人树立起安贫乐道、超然物外的圣贤标杆。这份不为外物所扰、不为名利所动的纯粹道心，也让他的学问愈发纯粹厚重、超然通透，为后续著书立说、教化万方、推演世运沉淀了最坚定的心性根基。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 온대아전(溫大雅傳)

온대아는 자(字)가 언홍(彦弘)이며 병주(并州) 기현(祁縣) 사람으로,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태원(太原)에 뿌리를 내린 수(隨)나라와 당(唐)나라 교체기(交替期)의 이름난 신하(臣下)이자 훌륭한 사학자(史學者)이다. 온씨(溫氏) 가문(家門)은 태원의 이름난 명문(名門) 사족(士族)으로, 대대로 학문(學問)이 깊고 온화(穩和)하여 누대(屢代)에 걸쳐 유학(儒學) 경서(經書)를 훤히 통달(通達)하였다. 온대아는 어릴 때부터 가문(家門)의 훌륭한 가학(家學)을 이어받아, 동생(同生) 온언박(溫彦博), 온대유(溫大有)와 함께 모두 시(詩)와 책(冊)을 널리 읽었다. 이들의 뛰어난 재주와 학식(學識)은 하동(河東) 땅에서 으뜸이었기에, 세상(世上)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세 명(名)의 온씨(溫氏) 천재(天才)”라는 뜻으로 “삼온(三溫)”이라 불렀다. 그의 성품(性品)은 묵직하고 돈독(敦篤)하며 후(厚)하였고, 식견(識見)과 도량(度量)이 높고 멀었다. 젊어서부터 넓은 학문으로 고향(故鄉)마을에 널리 이름이 났으며, 경서와 역사(歷史)를 깊이 탐구(探求)하여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흥(興)하고 망(亡)하는 이치(理致)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눈앞의 헛된 화려(華麗)함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묵묵(默默)히 학문을 닦으며 세상에 쓰일 때를 기다렸다. 수나라 말기(末期), 조정(朝廷)의 정치(政治)는 어두워 졌고 양제(煬帝)는 사치(奢侈)와 향락(享樂)에 빠져 나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니 천하(天下)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사방(四方)에서 영웅(英雄)들이 떼를 지어 일어나 온 나라가 갈가리 찢어졌으며, 백성(百姓)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방(四方)으로 떠돌아 나라 안팎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 무렵 당 고조(高祖) 이연(李淵)이 태원을 굳건히 지키며 나라를 바로잡을 거대(巨大)한 대업(大業)을 도모(圖謀)하고 정성(精誠)을 다해 천하의 어진 인재(人才)들을 널리 모으고 있었다. 온대아는 세상의 흐름과 형세(形勢)를 냉철(冷徹)하게 판단(判斷)하여, 수나라의 운명(運命)이 이미 다했고 천하의 민심(民心)이 당나라로 기울었음을 똑똑히 알았다. 이에 일가친척(一家親戚)들을 이끌고 이연에게 찾아가 몸을 맡겼으며, 이내 그의 군막(軍幕)에서 가장 핵심적(核心的)인 모사(謀士)가 되었다. 온대아는 성품(性品)이 치밀(緻密)하고 계책(計策)에 뛰어났으며 나라다스리는 실무(實務)에도 통달(通達)하여, 군사(軍事)나 정치적(政治的)으로 큰일이 터질 때마다 그가 내놓은 방책(方策)은 번번이 급소(急所)를 찔렀기에 고조의 깊은 신임(信任)을 받았다. 태원에서 처음 군사(軍士)를 일으킬 때, 군사들을 부리는 격문(檄文)과 조정(朝廷)의 엄숙(嚴肅)한 법령(法令) 문서(文書)가 대부분(大部分) 그의 손에서 나왔다. 문장(文章)이 한결같이 엄격(嚴格)하고 생각이 깊어, 군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나라의 예법(禮法)과 제도(制度)를 바로 세우니 이로써 이씨 당나라가 나라를 여는 기틀이 단단히 다져졌다. 마침내 당나라가 바로 서자 황문시랑(黃門侍郎), 공부상서(工部尚書) 등(等) 높은 벼슬을 두루 거치면서도 언제나 청렴(淸廉)하고 올곧은 태도(態度)를 지켰다. 자신(自身)이 맡은 직분(職分)을 다하고 백성들의 세금(稅金)과 부역(賦役)을 줄여주며 지방(地方)을 정성껏 안頓(安頓)하니, 새로 선 당나라가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나라의 근간(根幹)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온대아는 조정에서 세운 공로(功勞)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기록(記錄)한 공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功)으로 후세(後世)에 이름을 길이 남겼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일어나는 거대한 격변(激變)을 몸소 겪고 천하가 바뀌며 치세(治世)와 난세(亂世)가 교차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그 생생(生生)한 기록(記錄)을 바탕으로 《대당창업기거주(大唐創業起居注)》를 저술(著述)하였다. 이 책은 태원에서 처음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잡기까지의 모든 과정(過程)을 조금의 거짓도 없이 아주 상세(詳細)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의 글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公正)하였고 사실(事實)을 바탕으로 한 고증(考證)이 매우 정확(正確)하여, 훗날 정식(正式) 역사서가 놓친 자잘한 구멍들을 메워주고 한 시대(時代)의 진짜 역사를 온전(穩全)히 보존(保存)해 냈다. 이로 인해 훗날 당나라 초기(初期)의 역사를 연구(研究)하는 학자(學者)들에게 가장 중요(重要)한 핵심(核心) 서책(書冊)이 되었다. 그의 일생(一生)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돕고 정치를 다스려 갓 태어난 당나라의 사직(社稷)을 든든히 붙잡았고, 안으로 돌아와서는 붓을 들어 역사를 올바르게 써내려감으로써 천고(千古)에 부끄럽지 않을 진실(眞實)한 기록을 남겼다. 삶을 살아감에 법도(法度)가 있었고 학문을 닦음에 올곧은 길이 있었으니, 위대(偉大)한 공적(功績)을 세우고 고귀(高貴)한 저술을 남기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온전히 이룬 셈이다. 태원 선비 가문의 고결(高潔)한 학풍(學風)을 이어 받아, 당나라 개국(開國) 공신(功臣) 중 문신(文臣)의 가장 올바른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아 천년(千年)이 지나도록 아름답게 향기(香氣)롭다.

### 温大雅传

温大雅，字彦弘，并州祁人，祖籍太原，隋唐之际名臣、良史也。温氏为太原望族，世代儒雅，累世通经。大雅幼承家学，与弟温彦博、温大有皆饱读诗书，才学冠于河东，世称“三温”。其性沉静敦厚，识度高远，少以博学知名乡里，潜心经史，深谙古今兴亡之道，不慕浮华，潜心修学，以待天时。隋末朝政昏聩，炀帝奢靡怠政，天下大乱，群雄并起，四海崩离，百姓流离，朝野动荡不安。彼时唐高祖李渊镇守太原，起兵筹谋大业，广纳天下贤才。大雅审时度势，知隋室气数已尽，天下归唐，遂率宗族归附，为李渊幕府核心谋士。大雅性情缜密，善谋略、通政务，深谙治世之法，每遇军政大事，献策多切中要害，深得高祖器重。太原起兵之际，军书羽檄、朝堂文诰，多出其手，措辞严谨、思虑周全，安定军心、规整礼制，为李唐开国奠定制度根基。及唐朝立国，大雅历任黄门侍郎、工部尚书等职，立身清正，恪尽职守，轻徭薄赋，安抚地方，助大唐休养民生、稳固社稷。大雅不止有功于朝堂，更以修史垂名后世。亲历隋亡唐兴之变，目睹天下更迭、治乱兴衰，遂撰《大唐创业起居注》，详实记录太原起兵、开国立业全过程。其书叙事公允、考据真切，补正史之疏漏，存一代之史实，为后世研考唐初历史之核心典籍。纵观其一生，出则辅国理政，安定初唐社稷；入则秉笔修史，留存千秋信史。立身有度，治学有道，立功立言兼备，承太原士族儒雅之风，开李唐开国文臣之典范，名载青史，流芳千载。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용(인스타: sangjun2495) (용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 《추명서(推命書)》22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스물 두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二十二。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7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